

January 30 하나님의 사용하지 않으신다

• 골로새서 3:2-6

예수님은 간음을 행위가 아닌 마음의 문제로 보십니다. “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”(마 5:27-28). 여기서 “음욕을 품고”的 ‘품다’를 원어로 보면, ‘암탉이 알을 품는다’라는 뜻입니다. 시간이 지나면 암탉이 품은 알에서 병아리가 나오듯이, 마음에 음욕을 품다 보면 상황과 유혹에 따라 간음이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.

마음속 음욕을 제어할 장치는 무엇일까요? 유혹의 원천은 자기 자신입니다 (약 1:13-14). 하나님 탓, 상황 탓,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. 자기 안의 욕심과 정욕이 악한 유혹과 만나면,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곤 합니다. 죄는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합니다.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.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.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. 하나님은 “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”(레 11:45)라고 말씀 하십니다. 간음과 음욕은 ‘이기는 것’이 아니라 자신을 ‘지키는 것’입니다.

세상에는 거룩하지 않아도 성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깨끗하지 않은 그릇, 즉 거룩하지 않은 자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. 그런 자는 하나님 이 절대 함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습니까? 선한 영향력은 순전함과 온전함에서 나옵니다. “절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”(마 25:21).

나는 하나님께 사용될
준비가 되어 있습니까?

- ❶ 속마음까지 성령께 온전히 내어 드립니까?
- ❷ 죄의 생각과 죄의 자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있습니까?